

교회에서 음악의 위치

성경에는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 500군데가 넘는다. 창4:21, 계18:22

욥38:7,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살전4:)

시편은 전체가 찬송가이다.

엡5:19, 골3:16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하다.

마르틴 루터: 음악은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음악을 마귀를 도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음악은 사람이 분노, 무례함, 천박함 등의 각종 악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내게는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

예배 시간에 목사의 말씀 선포 전에 성령님께서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다.

하나가 됨을 느낀다. 감사, 기쁨이 치솟는다.

음악의 힘

많은 사람들의 주장: 음악은 중립이다. 아무 힘이 없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릭 워렌 같은 사람들

노래 안에 적합한 기독교적인 단어들만 있으면 어떤 종류의 음악도 다 수용해야 한다. 가사와 메시지는 록 음악이든 랩 음악이든 혹은 크리스천 메탈이나 다른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이 전달될 수 있다. 즉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합당한 말들만 있으면 그 음악은 수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고 따라서 그것을 위해 사용된 음악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음악은 예배를 고상하게, 경건하게 만드는 힘도 없고 예배를 훼손하는 힘도 없다. 음악은 가치중립 상태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좋은 가사가 더해지기만 한다면 어떤 음악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록 음악을 들으면 몸을 흔들고 심지어 실신하기도 하는가?

록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힘을 알기에 어떻게든 음악이 중립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음악의 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좋은 치과 병원은 안정을 주기 위해 편안한 배경음악을 틀어 놓는다.

고급 레스토랑의 소유주들 역시 고객들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며 기분을 좋게 하는 음악을 선정하는 데 큰 신경을 쓴다.

쇼핑센터의 소유주들 역시 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편안히 쇼핑할 수 있도록 좋은 음악을 선정하기 위해 신중을 기한다. 그리해야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음악 (보통 매우 시끄러운 음악)을 사용하여 팬들이 경기에 흥분하도록 만들고 이로써 열광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야구 게임에서 왈츠풍의 음

악이나 자장가와 같은 느린 음악을 틀지 않는다!

어머니가 아이를 재울 때 록 음악을 틀겠는가?

장례식장을 가 보라. 그곳에서 배경음악으로 연주하기에 적합한 음악이 있고 장례식장 매니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음악도 있다.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390)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날날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305)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기를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두 곡의 가사를 바꾸어서 넣어 보면 메시지와 음악의 분위가 완전히 다름을 직감할 것이다.

음악은 사람에게 최면을 거는 힘이 있다. 헨드릭스의 말
당신은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약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들의 잠재의식 속으로 선포할 수 있다. <Life, 1969년 10월 3일, 74쪽>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광고주, 가장 잘 맞는 음악을 찾으려고 애를 씀

음악 강해 피아노 순서

1. 음 자체는 중립임을 보여 주기 위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나 하나 친다.
2. 멜로디(곡조) 설명: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원수, 1926년)

C F C G7 C G7 C D7 C G7 C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단음으로 리듬 없이 단조롭게 같은 세기로 친다.

3. 하모니(화음) 설명:

이번에는 화음을 넣고 역시 단조롭게 같은 세기로 친다.

화음은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다장조 으뜸화음(도미솔, 1도화음, Tonic, C코드), 버금딸림화음(파라도, 4도화음, Subdominant, F코드), 딸림화음(솔시레, 5도화음, Dominant, G7코드)

기타에서는 C, F, G7, D, G, A7, E, A, B7 등

4. 리듬 설명

1박과 3박에 강세

멜로디, 하모니, 그리고 리듬이 들어가면 음악이 풍성해진다.

음 자체는 중립이지만 멜로디, 하모니, 그리고 리듬이 들어가면 듣는 이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1. <젓가락 행진곡 (Celebrated Chop Waltz)>은 널리 알려진, 피아노를 위한 작은 왈츠이다. 1877년에 유프미아 앨런이 아르튀르 드 뤼리(Arthur de Lulli)라는 가명으로 썼다. 위키백과

보통 한 명이 아니라 둘이 친다. 화음이 생기면서 매우 경쾌하다.

2.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 1807년경 이 곡을 작곡할 당시의 베토벤은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베토벤의 귀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나폴레옹이 빈을 점령하는 등 그가 사는 세상도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러니 이 교향곡을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환희를 그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그럴 듯하다. 곡을 들으면 1악장에서 시련과 고뇌가, 2악장에서 다시 찾은 평온함이, 3악장에서 씩 없는 열정이, 4악장에서 도달한 자의 환희가 느껴진다.

3. 피어 긴트(페르 쿤트) 중 솔베이지의 노래: 노르웨이의 그리그

방랑의 길을 떠난 주인공 페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솔베이지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1875년에 쓰여 1876년 초연되었다. 《페르쿤트 음악에서의 관현악모음곡 제2》(작품 번호 55:1891)의 제4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A단조로 시작되는 바이올린의 애수를 띤 선율로 널리 애청되고 있다.

4. 찬송가를 보자.

찬양: 주 하나님 큰일을 행하셨네(451)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300)

회개: 나 행한 것 죄뿐이니(254)

장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219)

5. 리듬의 오용

예수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강제: 1박, 2박, 2, 4박, 3박

정상적인 리듬: 1박(강), 2-4박(약)

6. 헤비메탈: 방송실에서 녹음한 것 틀어 준다.

7. 크리스천 락: 방송실에서 녹음한 것 틀어 준다.

8. 크리스천 랩: 방송실에서 녹음한 것 틀어 준다.

여기까지 설명한 뒤 음악이 영혼육에 미치는 영향을 30-40분 설명한다.

2. (3번)을 설명하시기 전에, <예수님 사랑하심은>은 보통 두 가지 박자(2/4박자, 4/4박자)의 악보가 있음을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마제스티찬송가는 <2/4박자, 내림마장조>이지만,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는 쉽게 <4/4박자, 다장조> 악보로 설명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3번) 하모니(화음)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 사랑하심은>을 가지고, 아름다운 화음과 **아름답지 않은 화음(불협화음)**의 연주도 피아노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4. (4번) 리듬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박자는 (2/4, 3/4, 4/4, 6/8 등) 모두 첫 번째 박자에 강세가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4/4박자의 경우도 (**강.** 약. **중강.** 약)의 패턴을 가진 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2/4박자 (**강.** 약)

▶3/4박자 (**강.** 약. 약)

▶4/4박자 (**강.** 약. **중강.** 약)

▶6/8박자 (**강.** 약. 약. **중강.** 약. 약)

5. (5번) 리듬의 오용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 사랑하심은>으로 노래하기 전에, 강세에 맞추어 먼저 가사를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노래는 읽는 것보다 덜 효과적입니다. 음악 강해 중 싱어는 아래 부분만을 요청에 의해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박 강제

예수님 사랑/**하**심은-/**거**룩하신/**말**일세-/**우**리들은/**약**하나/**예**수님 권세//**많**도다

▣2박 강제

예수님 사랑/**하**심은-/**거**룩하신/**말**일세-/**우**리들은/**약**하나/**예**수님 권세/**많**도다

■3박 강세

예수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2박/4박 강세

예수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음악과 사람은 3중적 존재이다:

음악: 멜로디, 하모니, 리듬

사람: 영(하나님 의식) 혼(자기의식, 지정의) 육(세상 의식)

멜로디(곡조, 음악을 만드는 요소) ☞ 영

하모니(음악의 논리적이고 지적인 요소) ☞ 혼

리듬(음악의 뼈대) ☞ 육, 살과 피가 없이 뼈대만 있으면 죽은 송장,

영과 멜로디

주로 사람의 영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멜로디가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다. 가사가 없어도 음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혼과 하모니

주로 사람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모니에 신경을 쓴다. 보통 코드라고 하는 것

즉 음악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멜로디와 하모니를 듣게 된다.

찬양대 연습,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연습, 따로 따로 들으면 별 감흥이 없다.

그런데 4부를 합치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

육과 리듬

우리의 몸은 리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사의 행진곡, 리듬과 함께 발을 구른다.

광고에 나오는 음악의 리듬에 따라 아이들이 반응한다.

음악에서 멜로디가 으뜸이 되어야 하고 하모니와 리듬은 멜로디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 즉 하모니와 리듬이 반역을 일으키면 혼동이 생기고 혼란이 생긴다.

록 음악, 랩 음악 등은 리듬이 주가 되는 음악이다. 그 결과 음악의 균형이 깨진다.

리듬을 없애면 좋지 않는가? 안 된다.

노 리듬: 죽은 음악

너무 많거나 적은 음악: 병든 음악

균형 잡힌 리듬: 건강한 음악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롬8:8), 롬12:2; 롬13:14; 벵전2:11

1.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롬12:2)

크리스천 락, 크리스천 랩 등, “우리는 세상 록 밴드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하면 안 된다. 세상에 아예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

2. 육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롬13:14)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육신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우리를 넘겨주려고 애쓴다. 록앤롤이라는 말 자체가 부도덕한 섹스를 뜻한다.

롤링 스톤스의 롬음악 백과사전: a blues euphonism for sexual intercourse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한 블루스 스타일의 음악, 그래서 롬음악 파티 이후에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디스코 파티 장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보라. 장사가 안 된다. 음악은 중립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너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엡5:19)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골3:16)

두 구절 모두 ‘너희 마음속에서’, 선율(melody), 은혜(grace)

멜로디(총 4번, 사23:16, 51:3, 암5:23, 엡5:19), 곡조, 선율, 노래 가락 등

대개 현악기와 함께 노래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룩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

세상의 음악은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없다(벵전1:15-16).

은혜(골3:16) 170번,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 그리고 그 결과 은혜가 삶에서 반영된 것. 롬10:13

고후5:17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심지어 노래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

경건치 않은 음악

출32장, 40일간 금식하며 시내 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내려오는데 무언가가 이상함(7-8), 백성이 벌거벗고 소리를 지르며 송아지 마귀 우상에게 경배를 드림

여호수아가 들으니 적들이 침입한 것 같음, 모세의 말(17-18)

우상숭배(1, 4, 8)

부적절한 일이 발생함(25), 대다수 록 음악 콘서트에서 일어나는 일, 별거벗는다. 남녀가 별거 벗으면 성적 문란함이 일어난다. 브라질의 카니발 삼바 축제, 삼바 음악과 함께(삼바 음악은 템포가 빠르고 매우 리드미컬하다)

성적 문란(6), 일어나 뛰놀다. 뛰놀다는 말은 남녀가 음탕하게 노는 것을 말함

음악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만든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만든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든다.

그래서 음악을 조심해야 한다.

히5:11-14,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다.

좋은 음악

삼상16: 사울과 다윗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자주 거역함, 그 결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구두어 가 시고 악한 영을 보내서 그를 괴롭히게 하심, 우울하게 만드는 영

다윗이 그를 위해 하프를 타매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남

1. 육적인 효과: 사울의 몸이 상쾌하게 됨. 숨을 잘 쉬게 됨
2. 정신적인 효과: 사울이 좋아짐(well), 지정의의 변화
3. 영적인 효과: 악한 영이 떠남

즉 좋은 음악에 의해 사울의 영과 혼과 육이 평안을 되찾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개인의 삶 속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활방식, 음악 등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레10:8-11, 거룩한 것, 부정한

겔44:23

결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내 혼에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

음악이 나를 잡아매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

특별히 리듬이 육신을 부추기지 않게 해야 한다.

고전: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 크리스천 록 음악, 랩 음악: 예수 등이 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세상 음악과 또 같다. 더 바쁘다. 이룬데 들어 있는 예수는 성경의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에 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순수함과 거룩함, 성도들의 고상함을 보아야 한다. 천국 백성이므로.

이때 7-8분마다 1분씩 4곡을 듣는다. 클래식 음악, 찬송가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쇼팽: 피아니스트, Chopin Nocturne C sharp minor (Arjen Seinen).

별(이수인)

할렐루야(헨델)